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8월 ~ 9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김, CODEX, 국제 기준, 수출, 위생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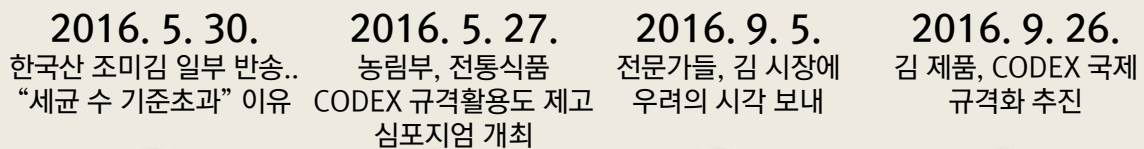
주요 키워드 :

김, CODEX, 국제기준, 수출, 위생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핵심이슈
도출

“한국산 김, 국제규격화로 수출 전망 긍정적”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한국산 김, 국제규격화로 수출 전망 긍정적

2016년 9월 28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 20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에서 김의 국제규격에 대한 초안 심사가 통과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7월, 김 국제교역 기준이 최종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생산물 김(seaweed)은 최근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주요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김에 대한 국제적인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국가에서는 김의 위생 기준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로 서로 다른 국제규격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는 한국산 김이 중국에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김에 대한 국제규격이 없어 해조류나 가공식품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김에 해당하는 위생기준을 적용 받지 못해 중국의 사례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규격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보다 신속한 도입을 위해 일본, 중국 등 주요 이해당사국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현재 CODEX에 상정된 김 제품 규격초안은 우리나라 김 제품의 특징을 반영하여 파래, 감태, 매생이 등 다양한 해조류로 구분하고 있다. 통칭 'Seaweed'로 분류되었던 김과 기타 해조류를 다양하게 구분하여 명문화한 것이다. 국제 위생기준은 국내의 기준과 동일하게 책정될 계획이다.

국제규격화 추진으로 명확한 기술규격과 위생기준이 마련된다면 김 교역이 더욱 활성화되어,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을 중요시하는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제규격화를 위한 움직임은 김 수출 농가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한국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규격화 추진으로, 국제규격 역시 국내와 같은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국내의 기준과 동일하게 제품을 생산·포장할 수 있어 국제적인 규격과의 차이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도적인 비관세장벽 조치나 CODEX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일부 국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김 수입기준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하기 웹사이트에서는 CODEX의 국제 식품규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standards/en/>)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